<합격수기>

12학번 김○희

1. 합격까지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임용합격자입니다. 코로나19로 정신없이 일하다보니 벌써 3년차가 되었네요. 임용준비했던 시간보다 일한 시간이 짧아요. 이 합격 수기를 읽으신 분들은, 너무 길지 않은 시간동안 임용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교육학(20점 만점, 과락 8점)	13	17.33	18	12.67	17.33
전공(80점 만점, 과락 32점)	19.33(과락)	32	43	42	66
1차 시험 총점(100점)	32.33	49.33	61	54.67	83.33
커트라인	(경기)56.33	(경기)55.67	(제주)68	(충남)59.33	(제주)77.34
(내 점수)-(커트라인)	-24	-6.34	-7	-4.66	+5.99

저는 고향이 제주도여서 제주지역을 희망했습니다. 제주지역 티오가 매해 많이 바뀌는 편이어서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시험을 치게 되었네요. 저는 매해 커트라인 분석을 해서 커트라인이 낮을 것 같은 지역을 골라 지원했습니다. 나오는 점수를 보면 커트라인 문제가 아니라 제 실력의 문제지만, 혹시나 운이라도 따라준다면^^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인천-경기 이 세 지역이 서로의 티오에 따라 경쟁률이나 커트라인 변동이 많구요(눈치싸움..),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항상 커트가 중~중하위권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합격하면 5년동안 타지역 이동이 안돼요... 강원은 1차 커트라인이 2배수를 뽑는 지역임을 고려해 지원하셔야 합니다.

2020학년도 최종 합격 때 2차 시험 성적은 92.43/100 (심층면접 36.9/40, 수업실연 42.03/45, 지도안 13.5/15)입니다. 지역 선정할 때, 2차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지도안 작성 유무, 경기 지역은 집단토의와 수업나눔-수업실연 끝나고 질의응답하는 것이 있음)도 고려했습니다.

2. 1년 스터디 커리큘럼

저는 2016학년도(초수)때 학교, 2017학년도(재수)때 1년 노량진, 2018학년도(삼수)때 하반기 노량진, 2019학년도~2020학년도(n수)때는 제주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1년 장기로 계획을 세워 공부하기엔 미숙하기도 했고,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여 노량진으로 향했습니다.

노량진의 1년 스터디 커리큘럼은 대략적으로 이랬습니다.

대수(5주)		해석(6주)		위상(3주)	
정수(2주)	선대(2주)	복해(3주)	확통(2주)	미기(3주)	이산(2주)

일시	빅3	내용	서브	내용
1주 (3.11)	대수 (프렐)	군 4,5,6,8,9,10,11,13,14,15	정수론 (박승안)	1,2,3장
2주 (3.18)		군 34,36,37		4,5,6장
3주 (3.25)		환 18,19,20,21,22,23	선대 (안톤)	1,2,3,4,5장
4주 (4.1)		환 26,27,45,46,47		6,7,8장
5주 (4.8)		체 29,30,31,32,33,48,49	복해 (강승필)	1~8장
6주 (4.15)		체 50,51,53,54,55		9~13장
7주 (4.22)	해석 (바틀)	수열 2,3,4장(3.7제외)		14~17장, 20장
8주 (4.30)		연속함수 5장	확통 (사대생)	1,2, 3.1
9주 (5.7)		미분 6장		3.2, 3.3, 4
10주 (5.16)		적분 정동명 7장	미기 (표용수)	1,2,3장
11주 (5.21)		함수열 8장		4장
12주 (5.28)		급수 3.7, 9장		5,6장
13주 (6.4)	위상 (박대희)	3,4,5장	이산 (박종안)	1, 2.1
14주 (6.11)		6,7장, 8.1, 8.2		2.2, 3

주로 보는 책은 해석학(바틀, 정동명), 현대대수학(프렐라이, 박승안), 위상수학(박대희), 정수론(박승안), 선형대수학(안톤), 복소해석학(강승필), 확률과통계(사범대생을 위한 확통), 미분기하학(표용수), 이산수학(박종안)이었으며, 이 기본서들을 3월~6월동안 보게 됩니다. 위와 같은 스케쥴...^^ n수들은 여기에 해당 범위의 기출문제, 해당 범위의 전년도 78 강사문풀을 같이 보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서+기출(또는 전년도 강사)가 끝나고 나면, 올해 78 강사 문풀, 올해 910 강사 모의고사풀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 강사만 따라가는 건 아니고, 다른 스터디원과 교환하며 2~3명 강사들의 문제들을 보게 돼요. 12월~1월에는 2차 시험 준비(1차 합격 결과 나오고 준비하기에는 2~3주 시간밖에 없어서 일단 그냥 준비합니다.), 1차 합격하고 나면 2차 시험 준비를 좀 더 빠르게 한 번 더 돌리고 시험 들어갑니다. 만약 여기서 1차 불합이 나오면... 힐링의 시간을 가지고 빠르면 2월에, 느리면 3월에 다시 시작하는거지요.

힐링의 시간을 가질 때도 '윤사사' 카페의 알림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터디 구성은 주로 1년 단위로 많이 하게되는데, 스터디원을 잘 구해야 1년동안 편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스터디가 구성될까 말까하는데, 2018학년도에는 제대로 된 스터디를 놓쳐서 저 혼자 공부했습니다.

강사들은 G스쿨(ㅇㄷㅅ, ㅎㅊㅈ), 해커스임용(ㅈㅎㅁ), 윌비스임용(ㄱㅎㅇ, ㄱㅊㅎ), 박문각(ㅅㄷㅇ, ㅇㅎㄹ), ㅇㅇㄷ

수교 강사들은 G스쿨(ㄱㅁㅇ), 해커스임용(ㅅㅇㅈ), 윌비스임용(ㅂㅎㅎ), 박문각(ㅇㄱㅎ)이 있습니다.

강사들은 개인적인 추천 순으로 적었어요!

2016학년도 때는 4학년 때 듣는 수업과 학교에서 선배들과 '교육학 스터디'만 진행했습니다. 교육학 말고 공부 안 했단 소리에요...ㅎㅎ... 이 때 다져둔 교육학 기반은 임용 준비 내내 교육학을 부담스럽지 않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2017학년도 때는 노량진으로 향했으나, 위의 1년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벅찼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원들도 저처럼 처음이어서 이끌어줄 사람이 부족했고, 전공을 제대로 공부한 적은 없어서 1년 커리큘럼대로 하긴 하되, 서브과목(해,대,위 빼고)을 전략적으로 챙겼습니다. 2018학년도 상반기에는 제주도에서 온라인스터디만 진행하며 공부하였습니다. 해,대,위 중 해석학에 집중을 많이 했으며(여전히 커리큘럼 따라 다른 공부는 실력 유지하는 정도로, 대수도 했으나 성장은 없었음) 하반기에 노량진으로 가서 문풀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점수로는 많이 올랐지만, 커트라인도 오르고 커트와의 차이가 살짝 늘어나면서 실망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2019학년도에 제주도에서 스터디를 구했습니다. 이 때 이미 3년의 경험으로 기본서를 많이 봐왔기에... 위의 1년 커리큘럼을 힘들지만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고, 스터디원도 잘 만나 실력을 많이 높일 수 있었습니다. 기본서+기출+전년도78문풀(ㅇㄷㅅ)을 3월~6월에 하고, 바로 올해 문풀을 강사 3명분(스터디원 한 명당 한 강사 맡아서 본인이 풀고, 그 강사의 좋은 문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을 하였습니다. 스터디장 욕하면서 공부했는데, 이 때의 성장이 2020학년도에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2020학년도에는 2019학년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한 번 더 하였습니다. 이 때는 다른 스터디원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성장되기도 하여서, 이 때는 제가 맡은 강사 말고도 2~3명 분의 문풀을 저 혼자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5년 공부하는 동안, 4학년이었던 해를 빼고는 1년 커리큘럼을 따라가며 다른 스터디들을 병행했습니다.

교육학 스터디는 2016학년도 때 기반을 다져둔 것이 많이 의지가 되었기에, 하반기에 교육학 개념 정리 및 외우기(7월~8월)를 진행하고, 모의고사 풀기(9월~11월)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7월~8월에 한 방식도 2016학년도 때 했던 방식 그대로 했습니다. 각 교육학에서 중요한 주제를 정한 다음(주로 객관식 시절 기출 위주), 각 스터디원이 주제 하나씩을 맡아 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하여 공유하였습니다. 제가 5개 주제 요약정리하는 것보다, 5명의 스터디원이 각각 하나씩 맡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회독이 빨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 효과가 좋았습니다.

수학교육학 스터디는 수교론, 수교재 3회독 후 백지쓰기 스터디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수학과 교육과정은 ㄱㅁㅇ 자료를 많이 활용하여 백지쓰기 스터디를 진행하였네요. 수학교육학은 많이 회독하여 외울수록 탄탄한 기반이 됩니다. 교육학만큼 효율적인 방법을 찾지는 못 하여서, 매해 꽤나 노력해야 했습니다. (교육학보다 더 자세한 답안이 요구되어서 꼼꼼히 외웠어요.)

전공 스터디는 1년 커리큘럼을 따라 1년 스터디를 구한 뒤, 다른 스터디를 온라인으로 병행하였습니다. 병행하는 스터디는 그때그때 제가 부족하다 싶은 과목 위주로 하였구요. 윤사사에서 나름 유행하는 것들도 있어서... 그것도 많이 따라 한 편입니다. (레알쌤의 기입형 문제: 미적이 약해서 미적 위주로, 모고유형화 스터디 등) 910모고 시즌에는 첨삭 스터디도 병행하였습니다. 저는 첨삭 스터디 꼭 추천합니다. 실전에 매우 유용한 스터디였어요! 제 답안을 공개해야 한다는 부담, 제 실력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등 많은 이유로 진입장벽이 높을 거란 거 압니다. 하지만 이걸 위해서라도 여러 전공을 빠르게 회독해서 답안을 적어볼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첨삭스터디를 시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답안을 볼 수 있고, 첨삭 받으며 어떤 답안이 실전에서 유리할지 많은 경험을 얻게 되니까요.

3. 공부 팁

(1) 윤사사(윤양동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카페 이용: 이제는 그냥 수학임용준비생들의 모임...
- 많은 초성 사용, 비밀 댓글로 적응이 힘들테지만 여기만큼 정보 공유 많은 곳 없습니다!
- 합격수기 / 자료를 나눕시다!! / 스터디 그룹 애용했습니다 ㅎㅎ

(2) 전략적 공부
- 문제는 많이 다루게 좋으며, 기본서+기출을 필수로 한 후 강사문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 910모고 시즌이 실전대비에 가장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첨삭 스터디" 꼭 추천합니다.
- 교육학 / 수교 점수 비중이 낮아도, 꼭 채워놓아야 하는 부분. 한 번 할 때 기초를 든든히 하시길 바랍니다.

(3) 경제적인 부분
- 학교에서 공부한다면 지원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름)
- 정부에서 취준생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으니 서칭 종종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 취업 장려금 명목으로 한 달에 30만원? 50만원? 정도를 지원받아 인터넷 강의 결제하였습니다.)

(4) 2차 스터디
- 2016학년도에는 ㄱㅇㅎ, 2017학년도에는 ㄱㅁㅇ, 2018학년도에도 ㄱㅁㅇ로 2차 수업실연 준비했습니다.
- 경기지역은 수업실연15분+수업나눔(수업실연 후 질의응답) 있으며, 해보면 어렵진 않아요. 지역마다 15분 실연, 20분 실연 다릅니다. 지도안 작성(1시간동안 쓸 시간 줌), 비작성(실연 직전 수업실연 문제지만 줌)도 달라요.
- 면접은 스터디로만 준비하였고, 집단토의는 안 해봤습니다.
- 2020학년도에는 학교에서 수업실연과 면접 준비를 하였는데, 이 때 효율이 제일 좋았습니다^^
  (2차 수업실연 노량진 강의는 1번정도만 추천합니다. 3번이나 한 거 돈 아까워요...)

4. 다시 공부하게 된다면

지금 되돌아보니 임용 준비 기간 내 제 부담을 덜어주었던 과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학: 2016학년도 때 했던 교육학 스터디
- 해석학: 교수님 수업이 최고!!
  그 때 정리 잘 안 해두어서 임용 준비 기간 내내 고생하다 2019학년도에 합격할 실력이 된 듯
- 위상수학: 교수님 수업이 최고!! 2016학년도 이후 개념 공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문풀만 진행
- 미분기하: 학부 때 열심히 해두고, ㄱㅊㅎ 강사분 듣고 완벽 정리 되었습니다.

특히, 현대대수학은 임용 준비 기간 내내 괴롭혔던 과목이었습니다. 학부 때 <군> 이후로 제대로 공부를 안 했고, 현대대수학이 실력을 상승시키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는 과목이더군요. **다시 공부하게 된다면, 학부 때 기본서의 모든 연습문제를 다 푼 상태로 임용 공부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 공부하면서 우울한 적도 많았고, 버거웠습니다. 노량진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었고, 여전히 그러하나... 이 합격수기를 쓰며 추억여행을 해보니, 마냥 울기만 했던 시절은 아니더라구요. 그래도 이 합격수기를 읽으신 분은 이 시절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을 '다시 공부하게 된다면'이라고 쓰게 된 이유는, 임용 준비의 시작은 학부 때 공부하는 '기본서'입니다. 임용 준비 시절이 길지 않기 위해 학부 때 기본서 연습문제를 모두 풀어보며 기본을 다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수업이 임용과 동떨어져있다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후회하는 이 부분을 학부 졸업과 함께 챙겨가기만 하셔도, 합격하기 위해 공부할 때 울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단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